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좌혜경*

차례

- I. 출가물질의 역사
- II. 현지적응과 경과
 - 1. 日本 房總半島-생존을 위한 인고의 삶과 징용물질
 - 2. 日本 對馬島- 물질 방법의 변화와 대응
 - 3. 日本 四國- 정착과 현지민과의 조화
 - 4. 경상북도 구룡포- 잠수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의 역사
 - 5. 강원도 주문진- 나잠 어업권의 수용과 해녀 어법전수
- III. 대응과 변용
 - 1. 물질과 입어권
 - 2. 물질도구의 변용
 - 3. 현지민과의 관계
- IV. 결어

I. 출가물질의 역사

출가(出稼)는 해녀 자신들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물질하는 것을 말한다. 곧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가 작업하는 형식이라 할

* 제주도 문화재위원.

수 있다. 제주 해녀들인 경우 근대기를 겪으며, 제주를 떠나 육지부 혹은 외국까지 눈을 돌리게 되면서 출가물질을 떠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출가 물질의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 잠수기 어선들의 남획으로 어획물이 줄어들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외부세계와의 연결 망 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에 성공한 일본은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서, 일본 어민들은 한반도로 출어하기 시작했으며, 1880년대 초부터 일본의 잠수기 어선 137척이 전복을 200관씩이나 한꺼번에 채취해간다. 잠수기 어업의 조선 출어의 시초는 1879년 4월, 야마구찌현 출신의 요시무라(吉村与三)씨가 잠수기 한 대를 가지고,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야마구찌, 나가사키 양현에서 동업자가 출어하고, 주로 제주도를 근거지로 하여 남해안에서 조업하였다.¹⁾ 잠수기 어업은 잠수복을 착용하고, 공기를 배급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 속에서 작업 가능하여, 어장은 곧 황폐화 됐다. 1885년 나가사키현 왕복문서에서는 조선인의 전복채취는 일본 잠수기 어선의 1/10정도 밖에 못 된다고 하고 있다. 곧 직접 해녀가 물에 들어가서 채취하는 양은 잠수기 어선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다.

잠수기선의 남획으로 전복 멸종 상태가 시급하게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작업 장소를 찾아서 1895년부터 제주해녀가 경상남도로 첫 출가 물질을 떠나고 그 이후 제주 해녀들은 출가물질을 극성스럽게 치렀으며, 그 범위도 상당히 넓었다. 경상도, 강원도, 다도해, 경북, 함경 등 육지부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 오사카, 중국 칭따오와 따리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많은 곳에 출가물질을 나갔다. 결국 출가 물질은 어장의 황폐화와 전복이나 소라 등 경제적인 환금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인 인식이 가능해진 데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출가의 방법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마도 등지에는 대부분 5톤의

1)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金榮·梁澄子, 『海を渡つた 朝鮮人海女』, (東京: 新宿書房, 1988) 230쪽 재인용.

범선을 이용하였다. 배에는 보통 12-15인이 타고, 연령은 17-30세까지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최고로 능력이 뛰어난 상군 해녀들이었다. 그외에도 선두사공 1명과 사공1-2명이 타고, 6정의 노를 이용하는데 보통은 해녀가 노를 젓는다.²⁾

특히 외국 출가 물질 중 일본 출가 물질은 대단했다. 양국의 출가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보면,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일본 해녀가 조선에 출가하면서, 이에 따라 두 지역 해녀들의 작업 능력 비교 면에서 제주해녀가 작업 능력 우위 인정을 받게 되고, 둘째는 일본인 잠수기 업자의 조선 진출로, 잠을 물건이 줌과 동시에, 잠은 물건을 바로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이 된다는 경제적 인식이 가능해진 점이다.

에히메현(愛媛縣)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사키(三崎)의 남성 海士(아마시)들이 1895년 이후 한반도에 출어, 그 규모나 어획량이 손꼽을 정도였는데, 울릉도를 비롯하여, 부산, 제주, 거제, 거문도 등에 주로 출어하였다. 출어는 책임자의 인솔하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5-6톤의 무동력선인 노를 젓는 선박으로 3,4월에 출발하여 25-30일 정도 걸려서 거문도나 부산 근교에 도착하였다. 약 5개월 간 조업을 한 후 9월, 10월에는 귀환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³⁾

한편 제주 해녀의 일본 출가 물질은 1903년(明治 36년)미야게지마(三宅島)를 시작으로, 주로 미에겐을 다녀왔다. 미에겐 해녀들은 조선으로 출가했으나, 제주 해녀에 비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주 해녀들을 수입해 가기에 이른다. 곧 일본해녀의 조선 출가는 제주해녀가 일본 출가물질 하게 된 발단이 된 것이다.

마스다이치지는 제주해녀가 이세 및 일본해녀에 비해서 노동 임금이 저렴하고, 능률이 비교적 높고, 추위에 강해서 이후 출가 해녀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32년(昭和7)에는 1600명이 된다고 했다. 일본 출가 물질 해녀는 고용관계에 따른 자가 많았다. 미야게지마는 김령의 선두(船頭)

2) 榑田一二, 『濟州島海女』, 『榑田一二地理學論文集』, 東京:弘詢社, 1976. 81 쪽.

3) 渡部文也·高津富男, 『伊予灘漁民誌』, 愛媛縣 文化振興財團, 2001, 172 쪽.

김병선(金丙先) 씨가 해녀 수명을 데리고 출가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32년 8월에는 미야케지마 坪田村 三地浦에 대정과 구좌의 해녀가 240명에 달했다고 한다. 기선(汽船)에 의한 일본의 출가는 대마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사카 경유이다. 오사카와 제주도간에는 특별한 경제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1922년 군대환(君代丸)의 개통과 더불어 '조선우선'(朝鮮郵船), '니기기선'(尼崎汽船) '가고시마 상선' 등이 경쟁적으로 여객을 운반했다. 해녀들은 가장 싼 배삐리로 도착하고, 그 이후 목적지에는 기선이나, 철도에 의해 이동한다). 능력면에서 뒤진 이세 해녀는 1929년 이후 조선 땅에서 발을 끊게 되었다.

1930년에 이르면 출가 인원은 5천명에 이르게 되며, 1931년부터는 함경북도까지 출가하게 된다. 1932년 통계를 보면, 일본에 출가한 해녀 수는 1천 6백 명에 이르고, 1933년에는 소섬 출신 문덕진이 칭따오(靑島)로 가서 포(浦를) 사고 미역포자를 이식하여 중국 물질을 시작하기도 했다.⁵⁾

에히메현(愛媛縣)미사키초(三崎町) 연안에도 바다를 산 상인 친척들의 주선으로 제주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갔다. 1949년 신어업권제도(新漁業權制度)가 시작되기 전에는 혼락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을 했다. 미사키 '구시'에는 20인 정도의 해녀가, 6월에서 10월 어기(漁期)에 집단으로 와서 천초 등을 채취했다. 아직도 작업했던 날짜를 도장으로 표기했던 자료가 남아 있다.⁶⁾

제주도 해녀의 일본 시장의 진출은 1895년을 기점으로 잡고, 세 시기로 나누어 이루어 졌다고 한다. 제일 시기는 1895-1945년의 자유이민 시대로 이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해녀들은 집단으로 뛰어난 물질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작업량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 활동이 가능해서 자유롭게 한반도나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1945-1960년대 지역적 이민시대에는 국경이 있어서 외국으로 이민이

4) 榑田一二, 『濟州島海女』, 앞의 책, 1976, 82-83 쪽.

5)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417-421 쪽.

6) 渡部文也・高津富男, 『伊予灘漁民誌』, 愛媛縣 文化振興財團, 2001, 173쪽.

제한되었기 때문에 밀항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국제이민시대로 합법적인 국제이민만이 기능한데, 여전히 합법적 이민도 있지만 불법적 체류방식도 있었다.⁷⁾

출가에 대한 고찰은 제주 해녀들의 근대 생활사이고, 나잡업자의 동태 파악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출가물질에 대한 민속적 적용 그리고 문화이동,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문화의 재생산 등을 살필 가능성을 지닌다. 제주 해녀들은 상당 부분 자신들이 지녔던 문화를 변용하고 다른 외부세계에서 얻은 문화를 수용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갔던 것이다.

II. 현지적응과 경과

1. 日本 보소반도(房總半島)-생존을 위한 인고의 삶과 징용물질⁸⁾

일본과 해녀 교류의 역사 기록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은 헤이안 시대 초기 엔기(延喜)5년(905)에 올림 시행세칙을 편찬한 엔기시키키(延喜式)이다. 여기에 ‘耽羅鯨 6근’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다. ‘탐라복’의 정체를 통해 제주 해녀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탐라산인 탐라에서 무역 혹은 조공으로 수입된 전복인가 혹은, 탐라로부터 온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한 것인가,⁹⁾ 그렇다면 이미 제주도 해녀와 일본 해녀(아마)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가 라는 점이다. 또 전복의 형태가 탐라복의 형태는¹⁰⁾ 아닐까?

제주 해녀의 출가지로는 주로 동경(三宅島, 大島)을 비롯하여 미에(三

7)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島の海女』, 東京: 明石書店, 2001.

8) 이 지역의 자료는 金榮·梁澄子, 『海を渡つた朝鮮人海女』, 東京: 新宿書房, 1988에서 자세히 조사되어 정리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9) 시바료타로, 『탐라기행』, 서울: 학고재, 1998. 271쪽.

10) 田辺悟, 『日本蠻人傳統の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90, 180쪽.

重), 시즈오카(静岡), 지바(千葉), 도꾸시마(德島), 고치(高知), 니시카와(石川), 후꾸이(福井縣) 등에 집중되었다. 일본 출가했던 제주 해녀들은 식민지 해녀들이 늘 당했던 수탈이나 혹은 계약 위반 등의 부정적인 면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보소반도 외측 가츠우라(勝浦), 아마즈(天津), 후토미(太海), 와다우라(和田浦) 내측으로, 지쿠라(天倉), 호타(保田), 가나야(金谷), 竹岡(다케오카)의 총 8개소를 4년 동안 돌아서 28인의 해녀들을 만나 기록한 사실에는 1987년까지 살아있던 제주 해녀들의 일본물질에서 겪는 인고의 삶이 잘 정리되고 있다.

가. 와다우라(和田浦)의 우라우케

1983년 와타우라에는 4인의 현역 해녀들이 있었다. 이정연(당시, 72세), 이태옥(당시, 72세), 고인옥(당시, 68세), 양춘옥(당시, 66세)이 고무옷을 입고, 보통 1일 평균 5시간 동안 물질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1922년 제주도과 오사카간 출항했던 군대환을 타고, 출가 물질을 나왔다. 1918년경에 와타우라에 해녀인솔자인 박기만씨가¹¹⁾ 매년 어기(漁期)가 되면 입찰에 따라 포(浦)를 사는데 이를 '우라우케'라고 했다. 주로 전북 바다, 우뭇가사리 바다 등으로 어획물의 종류, 해녀인원수 등에 따라 산출금액과 입찰액이 결정된다. 당시 한국인은 원주민 어업권과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포를 살 권리가 없었으므로 일본사람 권리자의 이름을 빌어 입찰에 참가했다.

박씨의 인솔로 해녀들은, 4월이 되면 군대환을 타고 일본으로 왔으며, 9월에 다시 제주로 돌아오게 된다. 보통 18인 정도가 이곳에 있었고, 해녀들은 박씨를 '대표자' '책임자'라고 불렀다.

나. 가나야(金谷)의 감태 뜯기

1986년경에 가나야에는 현역 해녀들이 있었다. 고봉순(당시, 70세), 김정

11) 金榮·梁澄子, 앞의 책, 21쪽.

인(당시, 64세)과 남편 김찬수(당시, 64세) 그 외 이효순(당시, 76세), 김창숙(당시, 56세), 김옥순(당시, 29)이 있었다. 고봉순은 25세 때(1938년) 물질보다는 방적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넜는데, 남편이 인솔자여서 천초 해녀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20세가 되어서야 물질을 배우게 되고, 이후부터 작업을 했다.

김정인은 '군의 명령'에 의한 '징용' 물질을 강조한다. 남편 김찬수씨는 1939년 국민 징용령이 발표되자 '탄광에 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대체 조건으로 감태 자르는 징용에 응했다. 곧 아내를 해녀로, 남편은 선장으로 징용된 것이다.

감태 끊는 작업은 한 척의 배를 사용하여 선장 1인과 해녀 1인에 의해 행해지고, 허리에 끈을 매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숨이 지속되는 한 감태를 자르고, 다시 끈을 당겨서 신호를 보내면 선장이 배 위로 끌어올린다. 배에 수확물이 가득 차면 일단 돌아오고 감태를 육지에 내린 후, 다시 반복했다.

감태는 화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업회 관계자와 하급 병사들이 감태를 말린 후 불로 태워 재를 만들어 가져갔다. 곧 제주해녀들은 일본인 침략 전쟁을 지탱하기 위한 알맞은 노동력으로 이용된 것이다.

다. 가츠우라(勝浦)의 입어 불인정

가츠우라에는 1938년부터 해마다 인솔자 박기만 씨가 그 지방 어업조합의 의뢰를 받고 10명의 해녀들을 데려왔다. 본격적인 해녀가 없던 가츠우라에서 남성 해사들을 대신해서 전복 따는 해녀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 온 해녀들은 한림 한경 지역 출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역 앞에서 빠쟁꼬를 운영하고 있는 한림읍 협재 출신 장정순(당시 66세)은 자식이 물질하는 것을 반대할 정도로 넉넉한 집안의 딸이었으나, 출가 갔다 온 선배들의 이국의 진기한 풍물에 대한 화려한 체험담에 매혹되어 자유로이 살고픈 심정으로 출가했다.

현해탄을 건너 이바라끼현 미도, 요꼬하마, 지바현 아지끼 등을 전전하

다가 가츠우라에 정착한 것은 1948년 만 28세 때였다. 당시 이곳에는 해녀들이 10-23명 정도가 와 있었는데, 뒤에는 동경과 오사카 교외로 이동하여 갔다. 이외에도 두 사람 서인규(당시 65세), 김호순(당시 69세)이 같이 물질했다. 그 때 여기에는 30-40대 남성인 해사가 8명 있었다. 지역민들은 해녀에 대해 편견이 상당히 심했으나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바보 취급도 당했다.

가츠우라에서도 1943년부터는 전복을 잡는 대신에 감태를 뜯었다. 가츠우라 해사들은 처음에는 해녀들의 입어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들이 해녀들을 환대했고, 늙은 해사들보다 몇 배의 어획량을 취했기 때문에 '질투'를 한 것이다.

전쟁 후에는 가츠우라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입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정순은 텐진에 살림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사들의 반발을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츠우라 어협관할로 이사했으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입어권은 얻지 못했다.

2. 日本 쓰시마(對馬島)-정착과 물질 방법의 변화와 대응

지금 쓰시마에는 한국사람이 20명 정도 있다. 세대수는 15-16세대이다. 1955에서 1960년 경에는 밀항으로 물질하러 오거나 숲 구우러 온 사람 등 2800명의 한국사람들이 있었다. 현재 이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거나, 대판, 동경, 야마구찌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쓰시마 전체에는 물질하는 해녀가 250-300명 정도가 있다. 이중 100명이 해녀다. 제주 출신은 3명만이 남아있다. 마가리(曲)는 원래 여성 아마만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쓰시마의 출가물질 현장 중 가장 제주 해녀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은 카미쓰시마초인 도요(豊), 아지로(網代), 와뉴라(鰐浦), 사쓰나(佐修奈), 고즈나(小綱), 이시도마리(西泊) 등이다.

가. 해녀노래를 잘 부른 정○숙

현재 제주에 살면서 쓰시마에 출가 물질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정태숙씨를 만나서¹²⁾ 해녀노래(네젓는 소리)와 쓰시마 출가물질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다.

출가 해녀들은 3월에 제주 땅을 떠나 8월 추석이 가까와 올 때까지 출가지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정태숙도 17살에 조카들의 아기업개로 출가물질을 시작한 이후 23살(1944년)까지 쓰시마에 여러 차례 물질을 갔다. 제주에서 부산까지는 여객선으로, 다시 부산에서 쓰시마까지는 발동선을 탔다. 15~20명이 한 배를 타고 이즈하라(嚴原), 고즈나, 사수나, 이시도마리까지 갔는데, 여기서의 물질은 뱃물질로 '농투스'이라는 배로 일정지역까지 노를 저으면서, 제주에서 불렀던 해녀 노래를 불렀다.

물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 주로 소라와 전복을 잡았고, 해초로는 감태, 뭍, 미역 등을 10월에서 겨울까지 작업했다. 잡은 해산물은 숙부인 정태현에 의해 부산에 와서 팔았다. 일제 때에는 감태를 말려서 팔기도 했다. 당시 쓰시마에는 일본 해녀들이 없어서 주로 제주에서 데려간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을 잡았다.

점심 식사는 도시락을 싸고 가서 먹었고, 식사로 쓰는 식량은 주로 제주도에서 가지고 간 보리, 좁쌀, 말린 고구마 빵은 가루가 주된 것이었다. 날씨가 추우면 한두 시간 작업하고 배 위로 올라와 불을 피워서 몸을 데우려고 하면, 뱃사공과 뱃주인은 빨리 내려가 작업하라고 등을 떠밀곤 했다.

정태숙의 숙부는 정두석으로 대마도에 가서 바다(浦)를 사서 해마다 제주의 해녀와 뱃사공들을 불렀다. 대평리, 가파도, 사계, 한림, 고산 해녀들도 끼여든다. 주로 3월에 가서 추석 8월까지 작업하고, 또 미역 작업을 하게 되면 9월까지 있다가 오게 된다. 한달 동안, 계속해서 날씨가 좋으면 매일 작업하고, 보통은 10일에서 15일 정도다.

부식은 지역주민들에게 소라를 주어서 바꾸어 얻기도 하고, 또 전복 껍

12) 자료조사: 2002년 1월 17일, 제보자: 안덕면 대평리 정○숙 (여, 82)

질을 땀나무인 장작이나 호박과 같은 야채들과 바꾸어 먹곤 했다. 첫해에는 60원을 벌고 뒷 해에 80원을 벌어 명주와 광목 한 통, 이불 혼수, 요강 단지를 구입하여 23세에 시집을 갔다. 그리고 자신이 번 나머지 돈은 살림에 보태어 썼다.

제주 해녀들 중에는 '해묵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8월 지나 9월, 10월, 동짓달까지 몸을 캐거나, 미역을 말려서 일본사람들에게 팔았다.

나. 가과도 출신해녀 이○춘

쓰시마 긴(琴)에 살고 있는 가과도 출신해녀¹³⁾ 이○춘(여, 75)은 배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9살(1936)에 쓰시마에 왔다. 아버지는 가과도 출신 어부로, 발동선과 운반선을 가지고 뱃물질을 했다. 쓰시마는 바다가 깊고 물살이 거칠기 때문에 일반 나잠으로 잠수해서 작업하기가 어려웠다.

뱃물질은 주로 해녀 5~10명 정도를 배에 태우고 먼바다로 나가서 물질하는 것이다. 배가 기계선으로 바뀌면서 1954년부터는 콤푸레샤 물질을 배워 콤푸레샤 물질을 했다. 콤푸레샤는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 공급 줄을 메고 바다로 들어가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배 위에서 선도(船導)가 산소 통과 줄을 관리하게 되는데, 물질하는 해녀는 망시리와 산소통을 메고서 작업을 하며, 소라와 전복이 가득 차면 신호를 해서 배 위로 올라와 잠은 물건을 비우고 다시 내려가 작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처음 콤푸레샤를 할 당시는 흰 무명옷을 입었으나, 2년 뒤 1956년경에는 고무옷이 나오게 되어 작업은 더욱 수월하게 되었다. 테왁을 짚고 무명옷을 입은 때는 대어섯 발(한발이 1미터 50) 들어갈 수 있었으나, 콤푸레샤는 열다섯 발, 스무 발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12시까지 작업하고, 물으로 나오는 일없이 배 위에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을 한 후 다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작업을 한

13) 자료조사: 2003년 2월 7일-2월 11일.

제보자-가과도 출신해녀(이○춘, 여 75, 1928년생)

다. 총 7시간 반정도 작업에 임한 셈이다.

당시 전복은 아주 많아 하루 30~50 킬로 정도를 딸 수 있었고, 소라는 100~200킬로를 작업했다. 특히 쓰시마 북단인 도요(豊)나 완유라(鰐浦)와 같은 곳에도 전복이 많아, 바다에는 작업하는 배가 열 척 이상 떠 있었다고 한다. 채취한 물건은 사가는 제주사람이 있었고, 일본 쪽으로 가서 팔기도 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같이, 도요에서 살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머니가 병환이 나서 돌아가신 후에는 후루사또(古里)에 정착했다. 결혼 후 무역하는 남편과 같이 여러 지역을 이사 다녔다. 이시도마리(西舶), 오사카, 다시 쓰시마로 돌아와서 카모이세(鴨居瀬)를 거쳐 긴(琴)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쓰시마에서 물질은 보통 4월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때는 물이 차갑기가 이를 데 없다. 그래서 다리 시리는 병이 생기고 고혈압으로 인해 60세에 물질을 그만 두었다. 요즘은 오사카에 있는 자식들 집과 쓰시마를 왕래하며 지낸다. 1년에 제사를 세 번 모시고, 물질을 시작하는 날에는 바다에 가서 요왕지를 드리는 것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지금 긴(琴)에는 전복 소라를 캐는 50대의 남자 아마인 해사가 3,4명이 있다. 이들의 물질은 10년 정도전에서부터 했으며, 처음 왔을 당시는 물질했던 일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3. 日本 시고꾸(四國) -정착과 현지민과의 조화

1922년에 제주 오사카 간 군대환(君代丸)의 개통은 제주 해녀들의 일본 출가 물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때 무로또미사끼(室戶岬)에 터를 잡은 김령리 출신 정씨 가족의 예에서 제주해녀들의 출가 물질의 역사와 그 출가경위, 그리고 출가지에서의 삶 등을 추적할 수 있었다.

당시 무로또미사끼(室戶岬) 다카오까(高岡)에 정씨의 백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리고 三高에는 張씨 집안, 그리고 三津에는 정씨 가족이 자리잡았다.

가. 무로또미사끼(室戸岬)¹⁴⁾의 정씨 가족

정씨의 장남(현, 68)이 처음 일본에 간 것은 15세 적인 1952년이었는데, 당시 출가 물질에 대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군대환을 타고 17세 적인 1928년에 출가물질을 떠났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2년 앞서 1925~26년 쯤인 16세 때부터 먼저 드나들고 있었다.

양친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결혼을 했다. 아버지가 김령을 비롯한 구 좌읍 해녀들을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군대환이 김령 앞바다에 와서 대기 하면 덴마선이 군대환 까지 해녀들을 태워서 갔다.

특히 부친이 시고꾸 무로또미사끼 쪽으로 간 이유는 미리 간 장씨와 인척관계가 가장 주된 연고였다.

제주 해녀들은 처음 도착하고 테왁을 짚고 천초를 캐었고, 3월에 출가 해서 9월에 다시 환고향을 했다. 이처럼 해방 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나, 해방 후 부터는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1953-54 이 후부터 일부 테왁 해녀들이 콤프레샤 물질을 하였다. 정씨 가족 역시 배를 이용한 콤프레샤 물질을 했는데, 부친은 배 위에서 생명줄을 끌고 산소통과 호수를 관리하였으며, 어머니는 물 속에 들어가 물질을 하면서 천초를 뜯었다. 천초 작업이 주를 이루었고, 전복이나 소라 등은 양이 별로 많지 않아, 비록 잡더라도 자신들의 부식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당시 한국인들은 배를 사서 콤프레샤를 했다. 일본인들은 배만 소유하고 한국인 해녀들을 이용했으며, 콤프레샤를 사용하지 않는 해녀들은 여전히 테왁물질을 했는데 전체의 삼분의 이 가량이다. 큰 배인 경우는 '쌍머구리선'이라고 해서 두사람이 한 팀이 되어 콤프레샤 작업을 했다.

물질 작업은 힘을 요하고 또, 추위에 잘 견뎌내야만 했다. 특히 여성들은 수압과 추위를 견디는 힘이 남성들보다 강하여 여성 쪽이 물질작업에 더욱 참여하게 되었다. 뱃물질인 경우는 작업하러 들어가면 천초가 많을 때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작업하고, 배 위로 올라와 불에 몸

14) 자료조사: 2003년 4월 6일

제보자: 정○일(남, 68)

을 데우는 데, 그 횃수는 하루 중 서너 번 된다. 그리고 데워 해녀는 한 두시간 씩 작업하고, 두세 번은 물으로 올라와 불턱에서 몸을 데웠다. 장작은 바다에서 건져낸 나무를 주로 이용했다.

정씨 가족은 1951년부터는 무로또미사키에서 일본 오사카 니시나리로 이사해서 정착하게 된다. 오사카에서는 하루 벌이가 가능했다. 그래서 물질 작업 시기인 3월에서 9월 동안만 무로또미사키에 가게 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다. 대부분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삶을 꾸려 갔으며, 철공소와 같은 곳에서 일했다. 부친은 해방 전에는 12월에서 1월 기간에 제주에 와 해녀모집을 했다. 전쟁 후는 일본 내 대판부 쓰이다사 오다비조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집했는데, 당시 오사카에 있던 해녀들은 대강 30대 이상이었다.

무로또미사키 어업조합과 천초 계약을 맺어, 해녀 모집을 했을 때 부친은 해녀에게서 수입의 10%를 받고, 그리고 어업조합에서도 10%를 받았다. 당시 하루 공장노동자의 일당이 300원에서 400원 정도인데 비하면, 두 부부가 3월에서 9월까지의 벌이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한해 벌어서, 제주에서 집 한 채를 살 정도였다.

당시 어업조합은 해녀들과 직접 계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솔자와 년 단위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채취한 천초를 킬로 단위로 계산했으며, 미리 선금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주기도 했다. 밀항 해녀들이 많은 경우는 경찰과도 유착관계가 긴밀해야 했고, 일본인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 특히 무로또미사키인 경우는 일본인들도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솔자와 해녀들 간의 관계는 아주 좋았다.

그렇지만 출가 해녀들은 어업조합 조합원 자격도 못되고,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었으며, 단지 계약자로서의 자격 밖에 가지질 못했다.

무로또미사키는 바다가 세어서 간조와 만조차가 아주 심했다. 주로 천초는 해안에서 10-20미터 나가서 캐었다. 바다에서 뜯고 온 천초를 말리지 않고 날것으로 100킬로 씩 묶어 어업조합으로 넘기면, 바로 인근 일본인들이 말려서 팔았다.

대체적으로 출가 해녀들의 생활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10평정도 되는 건물 중 한 칸에 6명 씩 살면서 숙식을 해결했다. 1945년 직후에는 50-60만원 정도 벌었는데, 물질을 하지 않을 시기에 생활비로 다 써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전쟁 전에는 천초로 만든 한천이 군인들의 식사로, 그리고 약재로 이용했기 때문에 모자랄 정도였다. 특히 감태인 경우는 말려서 태워 그 재를 화약의 재료로 썼다. 또 정씨 일가는 무로또미사끼에서 천초 작업이 끝나면, 日和山에 까지 출장물질을 가서 천초 작업을 했으며, 또 나가사키에 가서 전복을 따고 파는 일을 2년 정도 했다.

정씨는 해방 전에 있었던 해녀들이 연세가 많아 작업이 불가능했고, 그 이후 천초도 차츰 사라져서 1965년부터는 인솔자의 일을 그만두었다.

나. 1970년대 고지현(高知縣) 다카오까(高岡)의 잠수들

“고지현(高知縣) 고강(高岡)은 대판에서 1시간 남짓 버스를 타야 하는 곳으로 제주 해녀들이 머물고 있는 마을은 40여 호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곳, 출가해녀들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반, 또 오후에 2시간 반씩 함께 하루 5시간의 수중작업을 한다. 방수 스포츠 옷을 입고 잠수기선의 공기 보급을 받아 1회에 2시간 남짓 천초를 뜯는다. 이들은 단지 채취물을 망사리에 집어놓아 채취하면, 물에서의 건조작업이나 검근(檢斤) 등은 현지 일본종업원이 도맡아 한다. 제주 해녀들은 하루 250kg 정도 따며 일본 해녀들 보다 서너 배나 능률이 높기 때문에 매우 환영받고 있었다. 사생활은 가스로 밥을 짓고 방마다 TV가 갖춰있어 매우 편한 편이나 영화관도 없기 때문에, 소일에 지루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들은 5만원의 월급을 받고있다고 말하고 있어 의문이 가는데, 당초 출가계약에는 kg당 채취요금을 36원으로 하여 선주와 50%씩 균분(均分)한다고 되어있는 만치 하루 250kg씩 20일만 채초(採草)한다 해도 월 9만여원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거로운 수속이 늦어 천초 채취적기(3월부터 8월)보다 한달 반이나 늦게 들어가서, 많은 천초가 녹아버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녀 초청(招請)이 본도 해녀대표 이범구 씨와 고강(高岡)어협 측의 의뢰를 받은 본도 출신 교포 장모 씨간에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수협 등 단체가 근로 조건 등을 확실히 다짐받아 계약을 해야할 것이다. 일례로 우리 해녀보다 기술이 뒤진 일본 해녀들이 일당 5천원(20일 작업이면 10만원)씩이나 받고 있다는데 모순점을 들 수 있다.”¹⁵⁾

한편 1970년 4월 14일, 일본 고치현(高知縣) 고강(高岡)어협 관내로 출가했던 본도 출신 해녀 고춘자(구좌면 월정리)가 5월 22일 하오에 물질도중 사망했다.¹⁶⁾ 그래서 26일 하오 무로또미사키 다카오까 공민관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어협관계자들과 지방민 1백50명이 참석했다. 무로또미사키 시장은 해초 채취 기술에 몸바친 고인을 추모한다는 감사장을 추서했다.¹⁷⁾

이곳에서의 물질은 1920년대부터 70년대 제주 해녀의 일본 출가 물질의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능력 있는 제주 해녀들이 필요했고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상당히 환영했음을 알 수 있다.

4. 구룡포-잠수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의 역사¹⁸⁾

국내 출가물질 해녀들의 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자에는 “가련한 운명, 제주의 생명, 흉악한 객주, 도내인사의 분기, 당국태도의 냉정”이라는 제하의 논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출가 해녀들은 10000여명에 달하고, 4월에서 9월까지 부산이나, 울산 등지로 출가물질을 가서, 활동하는 여자의 수효는 4천여 명이나 되는데, 한사람 평균 3백원어 치를 생산하여 120만원의 큰돈을 벌었으나, 객주들의 농

15) 제주신문, 1970년, 7월 4일자

16) 제주신문, 1970년 5월 23일자

17) 제주신문, 1970년 5월 27일자

18) 자료조사: 2003년 1월 3일- 7일.

제보자: 김정희(남,73)의 제주 해녀 10명

락으로, 반년간의 벌이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1923년에서 24년에는 육지부 기장(機張)에 출가한 해녀들에게 심한 욕설과 모독을 하고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경남 도 당국과 ‘해녀 입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⁹⁾

돈벌이를 위해 제주 해녀들은 경상북도 구룡포 지역으로 나갔다. 그 지방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을, ‘지선해녀’ 혹은 ‘지방해녀’라고 불러 이들을 출가해녀와 구분하고 있다. 돛배인 풍선을 이용하거나, 혹은 여객선을 이용하여 구룡포에 물질 나간 해녀들은 구룡포의 풍부한 해초와 해산물을 채취하였는데, 채취행위를 ‘무레질’이라고 불렀다.

현재 구룡포에는 1리에서 7리까지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주 해녀들이 주로 속해 있는 어촌계는 6리이고 대부분 6리에 살고 있다.

가. 경북 재정지구 입어권과 해녀 권익문제

1950년대는 어장매매와 해녀들의 권익문제, 곧 입어권과 판매권에 의한 권익이 제기되고, 경북 출가해녀들의 입어 및 입어 분류로 인해 경북 재정지구 입어재정권이 제정된 시기이다.

1949년 제헌국회에서 ‘조선어업법’을 한국 ‘수산업법’으로 기초하고 있을 당시 해녀들의 권익보호와 수탈행위를 막기 위해서, 해녀들에게 독립된 바다를 확정하여 주던가, 아니면 입어 관행에 의해서 수탈할 수 없는 조항을 삽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강대원(康大元), 고용우(高龍雨)에 의해 건의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1950년 ‘한국 나잠어업수산조합’이 결성되고²⁰⁾ 1952년에는 수산업법에 ‘입어관행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경상북도 어업 조합은 공동어장내의 천초, 은행초, 앵초의 채취 행사권을 입찰공매하여 그 대금으로써 어업조합의 사업자금을 충당했다. 이처럼 공매한 경우는 공동어장내의 해조류를 해녀들이 채취하고자 하더라도, 매수자가 엄금하고, 조합원이 행사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19) 강대원, 『해녀연구』(개정판), 한진문화사, 1973, 131쪽.

20) 강대원, 위책, 106-107쪽.

출가 해녀들은 이러한 해조류 어장을 개척한 장본인이어서 마땅히 그녀들의 노력은 인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지선(방) 해녀들과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다.²¹⁾ 그래서 경북 방면에 출가한 본도 해녀들의 자유 입어권의 문제는 경북어조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재차 분규를 일으키게 되어, 2천여 해녀들은 사활기रो에 섰다.²²⁾

가장 큰 문제의 초점은 지선해녀를 우선적으로 입어케한다는 어조측의 주장과 함께, 출가해녀 없이도 경북지역 출신 지선해녀 만으로 가능하고 제주 해녀 역시 자연 안전제로 입어할 것과 관행도 말살이라는 주장을 폈다.²³⁾

그런데 본도 해녀 1400명 중 1200명은 실행 입어권 보지자로서 관행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선해녀'라는 문구가 관행이 있는 해녀까지 포함한다면 제주해녀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 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제주 출가해녀들에게 "각서 이외의 금액은 회수치 못할 것이고, 관행이 있는 해녀는 지선해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어시키고, 허가처분이 아직 되지 않을지라도, 입어할 수 있도록 경찰국과 연결하여 준다"는 것에 합의했다.²⁴⁾

결국 제주도는 출가 해녀 권익보호 차원에서 전국 25개 지역에 현지 실태 조사를 나가게 되었고, 당시 경북 연안에 출가한 2, 3천명의 해녀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54년부터는 '경북재정지구'(慶北裁定地區) 교섭을 벌이게 되는데, 그 교섭기 3항목은 유명하다.²⁵⁾

'경북재정지구'는 제주도 해녀들이 해마다 출가하는 곳으로, 경상북도의 구룡포(九龍浦), 감포(甘浦), 양포(良浦)의 3개 어업협동조합관내 제1종 공동어장이다. 당시 제주도인 경우는 우뚝가사리가 연간 20만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경북인 경우는 80만근 정도가 생산되었다. 그래서 상공부는 55년 1월13일 입어관행을 인정했다. "관계어업 조합은 제주도 해무 당국

21) 제주신보, 1954년 6월 9일.

22) 제주신보, 1954년 7월 11일.

23) 제주신보, 1954년 8월 3일.

24) 제주신보, 1954년 8월 4일.

25) 경북해녀문제 교섭기 (3), 제주신보, 1954년 8월 4일.

이 인정한 제주도 출가 잠수에 대한 각기 향유하는 공동어장 내의 입어 관행을 다음의 조건 아래 인정할 것. 입어 수면 구역은 향유 공동어장 전역, 입어의 방법은 나잠(裸潛), 입어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말일, 채취물의 종류는 천초, 은행초, 앵초, 패류 등이며 입어 인원은 감포 어업조합이 191명, 양포어업조합이 279명, 구룡포 어업조합이 6백명이다.”라고 재정인원을 확정했다.

1956년, 4월 경북 출가해녀들의 계획은 지정인원 1070명으로 한정되었으나 신청인원이 100명이 초과해 재정인원 조절에 고심하게 된다. 그런데, 해무청당국의 지시로 도내 4개 어조에서 출가신청을 받고 그 회원 할로 300원 씩을 징수하였다. 1070명을 출가시키는 근본 방침은 변함 없었으나, 나머지 해녀들이 출가를 고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출가물질의 극성스러움과 너무나 없이 돈벌이를 위해 출타하는 제주 여성들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당시 해무청 당국이 ‘출가증을 가진 자’를 고집했지만 자유출가인수를 합치면 4천여 명의 해녀들이 출가를 지원한 것이다²⁶⁾

그 당시 해녀들의 입어는 국가 관여 없이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나, 입어 관행에 따라 ‘어촌계’가 어촌 부락 단위로 조직되고 공동어업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녀들의 입어권이나, 입어 시기, 채취물 채취, 수익분배 방법에 따른 통제는 잠수회가 맡았다.²⁷⁾

그렇지만, 비밀히 행해지는 어장매매가 해녀들의 권익을 짓밟고 있었는데, 수산업법 제 10조에는 엄연히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었다. 곧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어업 협동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각자 어업을 할 수 있고”, 또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해 면허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업협동조합에서는 미역인 경우 광암주(藿巖主)에게 행사료를 받고 팔아버리면, 광암주가 제주해녀들을 모집해서 해조류 한 근당 얼마씩 요금을 받고 채

26) 제주신보, 1956년 4월 1일.

27) 김영돈,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432쪽.

취한다. 그리고 입어행사료, 어협수수료, 지도원 수당, 위탁판매수수료 등, 수많은 명목으로 해녀들의 수입을 수탈해 가는 것이다.²⁸⁾

관행입어 재정은 어장매매를 줄이고, 출가 해녀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컸는데, 양포, 구룡포, 감포 향유 공동 어장 전 지역에 입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도 어장 매매는 계속되고 문제가 되자 드디어 경북 측에서는 1967년에 ‘입어관행권 소멸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주도 측의 패소로 판결이 났고, 즉각 피고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가 해녀들의 분쟁이 야기된다. 도 출가 해녀들의 역경을 말하는 가운데, 수산업법으로 입어권이 보장되는 출가해녀들도 곡압주와 상조회에 의하여 7할 이상의 수익을 불법적으로 착취당했다.²⁹⁾

뿐만 아니라 ‘입어문제 재분규’로 2천여 명의 해녀들이 생활의 기로에 서게 된다.³⁰⁾ 그래서 해녀 분쟁 절충이 시작되고, 방어진을 포함한 울산군 내에는 본도에서 5, 6백 명의 해녀가 매년 출가하여, 천초와 미역, 그 밖의 패류 등을 채취했는데, 경상남도인 경우 해녀 1인당 입어료는 48년에 1천원, 49년에 1천 5백원이었는데, 1957년에는 3천원으로 오르고, 1958년에는 4천원으로 오른 것이 원인으로, 입어료와 판매권에 의한 유혈소동까지 있었다.

어장 매수자를 ‘전주’라고 하는데, 전주들에 의한 어장매매가 극성스러웠고, 이 또한 해녀 착취 방법이었다. 어장매매는 범법으로 6개월 이상의 징역과, 만원이하의 벌금, 그래서 어장의 우선권이 반드시 ‘해녀’에게 있으며, 어장매매는 있을 수 없다고 해녀들의 권익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했다. 이로 인해 해녀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촉구가 제기 된 것이었다.³¹⁾ 도와 수산단체에서는 “출가증 소지자만 출가하라”, “인술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밀출가하지 말라”면서 1966년에는 출가를 억제해야한다는 방

28) 김영돈, 앞의 책, 1996, 520-522쪽.

29) 제주신보, 1955년 12월 29일

30) 제주신보, 1954년 7월 11일

31) 제주신문, 1963년 5월 21일

침을 세웠다.

1967년에는 재정지구 3개 어협이 ‘입어관행권 소감확인 소송’으로 입어 실적이 없는 제주도해녀 6명을 상대로 ‘입어관행이 소멸되었음’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다. 곧 피고측이 패소 판결을 받고, 제주 출신 해녀는 매년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자만이 관행에 의해 ‘입어권’ 있는 것이고, 최근 입어 경력이 없는 해녀는 입어권이 없다는 것이다.³²⁾

그 결과 1968년에 피고들은 원고측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다시 “최근에 입어한 실적이 없는 피고들은, 감포, 양포, 구룡포 공동어장의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다시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패소 후 해녀들은 경남이나 전남 등 다른 지역으로 출가 물질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제주에서의 해녀 수입은 평균 1만2천오백원이나 이에 비해 출가 잠수는 2만 3천원 정도가 되었다³³⁾.

나. 경북재정지구 구룡포 출가물질 상황

경상북도 양남, 감포, 양포, 구룡포, 대보는 ‘경북재정지구’로 유명한 곳이다. 이 지역 어업조합에 해녀들이 각 조합 별로 300명 씩 1070명의 출가물질 인원이 확정된 곳으로 원래 목적은 출가 물질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루어졌다. 해녀의 수가 배정되면 제주도 바닷가 동네를 중심으로, 1개 부락 당 30명에서 80명 정도 구좌, 표선, 남원,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녀들을 모집하였다.

대체로 여객선, 혹은 발동선을 이용하거나, 풍선이나 돛배, 혹은 차닷배를 이용하여 차좁쌀, 보리쌀, 된장, 콩잎과 같은 부식을 싸고 노를 저으면서 구룡포까지 물질을 나갔다.

제주해녀들이 가지고 간 특이한 음식들은 육지부 해녀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다. 콩잎을 어떻게 날 것으로 먹을까, 된장은 끓이지 않고 어떻게 먹을까, 좁쌀도 씻지 않고, 밥을 해먹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

32) 제주신문, 1975년 6월 13일

33) 제주신문, 1975년 6월 14일

문화의 차이는 제주 해녀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거주는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50명 정도가 한 지역에 머무르는데, 약간 명 씩이 집집마다 배치되었다. 집단 작업에 의해 천초, 은행초(도바라고도 함), 앵초 등을 캐었고, 이 취득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관리했으나, 중간 수수료를 착취하고 판돈을 착복하기까지 했다. 이때 구룡포 공동어장은 생산물이 많기로 유명했으며, 천초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한천업자들에 의해 팔려나갔다.

또 당시는 해녀벌이 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오징어잡이를 해서, 부부 동반으로 육지로 나갔는데, 이처럼 가족단위로 출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재정지구의 해녀들은 공식적인 통로를 거쳐서 나가기도 하고, 반면 밀출가 행위도 극성스럽게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정착을 했을 지라도 밀출가 하여 신분을 숨기고 1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많았으며, 남의 집 방을 빌려 살다가도 60-70년대 사이에 해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고가로 판매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여 생활이 향상되었다. 이때 지선해녀들은 제주해녀들에게 물질을 배우고 익혀나갔다.

제주도에서는 물찌 때만 가능하던 물질이 구룡포에서는 물찌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날이 좋으면 언제든지 매일 물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주 해녀들은 거의 매일이나 다름없이 물질을 했다. 따는 해산물로는 전복과 미역, 천초, 은단(보라성게) 숨(말뚝성게), 그리고 ‘헛물’이라고 하는 해삼, 고동, 문어 등을 잡았다. 전복은 크기가 좀 작은 편인데, 미역과 같은 데 붙어서 웅성거리며 올라오고, 빗창으로 떼는 것보다 호명어로 줍는 편이 쉽다. 그리고 물 속에서는 콤프레샤로 물질하는 잠수기선의 잠수부보다 해녀들이 더 강했다. 잠수부가 해녀들의 영역을 침범해보면 미역 자르는 낫으로 산소호수를 꿰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다. 잠수기 어선은 11종 허가를 받고 해안에서 15미터 이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녀들의 작업장에 침범을 하는 것이다

미역은 미역어장을 공매로 인수한 곽주 혹은 곽암주라고 부르는 임자

가 있었다. 그러면 곶주와 서로 계약을 하고 생산량에 곶주가 8할을, 그리고 해녀는 2할을 배당 받았다.

돌바당의 깨끗한 구룡포 해안에 1970년대 초까지 매일 물질을 했으나 생산물 감소로 80년대 초반부터는 다른 인근 지역인 강원도와 강구, 영덕 등지로 물질을 나갔다.

5. 강원도 주문진³⁴⁾—나잠 어업권의 수용과 해녀 어법 전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은 거의가 제주 해녀들이다. 나머지 지방해녀 몇 분들인 경우도 처음부터 물질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제주 해녀들에게서 그 기술을 습득, 같이 작업하면서 배웠다고 한다.³⁵⁾ 강원도인 경우 남편은 오징어잡이로 아내들은 물질을 하기 위해 왔다가 어업권을 획득하고 정착한 해녀들이 대부분이다.

가. 주문 5리 제주 해녀들

주문진읍은 행정구역상 12리로 구성되고 있으나, 읍내에는 3개의 어촌계가 있다. 바닷가 주변의 자연부락인 주문진리, 오리진리, 우암진리를 합한 종합 어촌계인 주문리 어촌계, 그 외 주문 5리 어촌계, 6리 어촌계다. 주문진 5리 어촌계에는 조합원 수가 114명이 되고, 해녀는 70년대까지 12명이었다가 현재는 8명만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 2명과, 나머지 6분은 제주도 해녀다

제주도 해녀들은 젊었을 때 이 지역에 정착하여 물질을 했으며, 거의

34) 자료조사: 2003년 4월 24-27일

 제보자: 가. 주문진 5리 어촌계장(송원선, 남, 52)

 나. 제주 안덕면 대평리가 고향인 이정숙 어머니(여, 68)

 다. 주문진리 어촌계장-김부영 (남, 57)

 라. 해녀 6분.

35) 龜山慶 : 『漁民文化의 民俗研究』, 東京: 弘文堂, 1986, 13 쪽.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연진리에도 출가해 온 제주도 해녀들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고, 그 지방해녀가 조업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60세가 넘었다.

해녀들은 '수심밭이'라고 하는 상군이 세 사람이 있고 주로 50대는 10발, 60대는 5발 정도 들어간다. 수입은 주로 전복, 미역, 성게, 해삼 등으로 개인당 연2000만원 정도가 된다. 미역은 건조해서 국을 끓이는 용으로 쓰는 참미역과, 씹을 싸먹거나 튀겨 먹는(미역부각) 구멍 난 쇠미역이 생산된다. 미역을 생미역으로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던 때는 1975년 경 이후부터인데, 실제 자연산은 자가 수요정도다.

주로 채취하는 해산물은 전복이다. 종표 1.5~2센티 짜리를 연간 2000만원 정도, 자연살포해서 바다에서 키우므로 자연산이나 다름없다. 전복 따는 시기는 보통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이 시기가 가장 가격이 좋다. 어촌계가 채취 일자라든가 판매를 모두 관여하고, 8센티 미만의 전복은 캐지 않으며, 어촌계가 전복을 선별하고 출하한다.

전복은 관리선 잠수부보다 해녀들이 더 많이 잡는다. 관리선의 잠수부들은 해녀들처럼 전복이 있는 돌 틈을 알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복은 빗창보다는 호멍이(호미)로 잡는 편이 더욱 쉽다. 전복이 주로 돌 틈새에 끼여서 있기 때문이다.

성게는 아까성게와 보라성게, 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까는 7~8월에 잡고, 굵어기는 9월이다. 보라성게라고 하는 구로는 5~6월에 잡고, 숨은 10월에서 겨울에 걸쳐 잡는다. 어촌계가 성게 바닷을 성게업주들에게 넘겨서 3년간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해녀와 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성게는 6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작업을 하고 해녀들은 이 성게 알을 깬 후, 1킬로그램 당 인건비로 20000원을 받고 있다.

그 외 해삼, 미역, 멍게, 홍합 등은 채취한 물량 전부 해녀들이 갖고서 판매한다.

미역은 3월에서 6월 중순까지 자연산 미역을 채취했으나, 급격히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주문진의 제주 해녀

주문진 어촌계는 주문진리, 오리진리, 우암진리를 합한 종합어촌계다. 어촌계원이 500명이고 제주 해녀가 11명이 있다. 이들은 어촌계원으로 인정되었으며 가입비는 없다. 물론 제주 해녀들은 수협조합원이다.

비록 주문진 어촌계가 어장은 넓지 않은 편이나 단일 어촌계로는 계원 수가 많고, 강릉시 2002년 수산분야 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조합이 활성화 되어있다.

주로 전복과 성게가 수입을 좌우하고 있는데, 전복은 봄, 가을, 여름에 채취하는데, 23회 정도 작업하고, 해녀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17-18회 정도가 된다. 어촌계별로 작업 시기와 가격도 조정하고, 8센티 이하의 전복은 잡지 않는다. 해녀들인 경우 전복 채취를 해서 어촌계와 그 비율이 7:3이다.

우선 자원관리로는 전복 종패 작업을 들 수 있다. 1년에 3000만 원어치의 종패는 무상지원 1500만원, 그리고 어촌계에서 1500만원 어치를 더 사온다. 성게 역시 자연산 아까 성게가 많이 생산되어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다. 성게는 개인업자에게 51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원래 미역은 1-2월에 채취를 하지만, 암반에 해초가 돋지 않아서 올해는 미역채취를 금했다. 해녀 개인당 연수입은 2천에서 3천, 그리고 나이는 해녀들은 천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 어촌계의 자원 관리 덕택이다.

어촌계 총대에서 홍합 바위를 3년 간, 300만원에 개인 업자에게 빌렸는데, 개인업자와 계약한 해녀들이 아침 6시 30분에 물질을 나가서 11시까지 작업했다. 하루에 거의 세시간 가량 작업하는 셈이다. 홍합은 껍질 채, 킬로 당 800원이고, 보통 한사람이 200킬로 정도에 따서 하루 15,6만원 벌이를 한다. 딴 홍합은 시중 판매를 위해 부산 쪽으로 가지고 나간다. 조개 역시 150만원의 행사료를 받는다.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보존을 위해서 채취일정을 조절하고, 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지역도 해녀들이 사라지면 스쿠버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Ⅲ. 대응과 변용

근대기의 출가물질에서 해녀들은 출가 물질 간, 바다의 특성에 맞게 적응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물질 작업 방법을 전수하기도 하고 또한 외부세계의 것을 받아들여 변화하기도 했다.

일본과 강원도 경상도로 출가 물질 간 해녀들의 어업권의 문제, 물질도구 및 현지민과의 관계를 대응과 변용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 물질과 입어권

우선적으로 해녀들이 출가물질에서 맞부딪치는 것은 입어권이다. 강원도에 출가간 해녀들인 경우는 입어권을 바로 인정받았으며, 구룡포에서는 입어권 획득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일본 출가 물질에서 '소라채취어업증'이나, '준조합원' 대우는 노동력 수탈을 위한 회유책의 일환이었다.

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5리 나잠어업권

강릉시에는 5년에 한번 강릉시장이 수산업법 제 44조 제3항에 의해 어업권을 교부하고 있다.

물질 작업을 '나잠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강릉시 주문진 나잠 어업신고 제 98-3호 어업신고필증을 보면 ㉠어업의 종류: 나잠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없음 ㉢어업의 방법: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 호미, 칼, 갈쿠리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기타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조업 또는 시설의 위치: 강릉시 연안 일원 ㉤포획 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전복, 홍합, 골뱅이, 우렁생이, 문어, 성게 미역, 다시마, 천초, 우뚝가사리 ㉥어업의 시기: 1.1-12. 31 ㉦유효기간 : 1998, 2, 25- 2003, 2, 24(5년간) 등이 설정되어 있다.

나. 일본 보소반도 가나야 천우어업 협동조합 정관³⁶⁾

가나야 천우어업 협동조합 정관에는 ‘어민’에 대한 규정이 있다. 곧 “이 조합 지구내에 주소를 두고 일년동안 90일 이상 영업하고 그것에 종사하는 어민”으로 되어 있다.

이 정관의 문제점은 ‘어민’이라는 자구에 그 한계가 있었다. 곧 가나야의 관습과 전통으로는 남잡업을 하는 ‘해녀’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제주 해녀가 어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소라채취 어업증’이라는 허가증을 주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시행하려고 내건 것이 아니라, 회유책의 일환이었다. 해녀들과의 토의 끝에 경계선을 그어서 바다의 일부를 해녀들에게 내주었으나, 일시적인 방책으로 이용한 것이다.

다. 보소반도 가츠우라 어협의 준조합원 대우

가츠우라에는 일본인이라면 다른 지역에 살면서 물질하러 오더라도 입어를 인정했으나, 한국인에게는 입어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녀들 입어 승인에 있어서 준조합원 대우를 해주었다. “조합의 정관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인은 대상 외”라고 하면 제주 해녀들은 “그러면 일본인이 아니어서 일본의 법률도 조합규칙도 지킬 의무가 없음”이라 저항하면서 서로 대치되었다.

일본인은 해산물 수입에 수수료 1할을 낸다. 제주 해녀는 1할 5푼의 수수료를 내어서 입어를 하고, 조합에 있어서 ‘준조합원 대우’를 했지만, 발언권과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합원 형식도 본인 일대에 한한다는 것으로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정식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36) 일본 보소반도의 예는金榮·梁澄子, 앞의 책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이하 같음.

2. 물질도구의 변용

일본해녀가 제주해녀들의 물소중이가 좋아서 입는다거나, 일본에 출가한 후 물질도구인 ‘테왁’ 대신 ‘이소오케’(磯桶)를 자신들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는 등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변용이 있었다.³⁷⁾

가. 테왁을 탐포로, 혹은 스티로폼로

제주 해녀들은 보소반도에 가서 주로 테왁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식 테왁인 탐포를 사용했다. 일본 지역마다 이것의 명칭이 다른데, 오케, 이소오케, 탐포라고 한다. 와다우라 출가해녀들도 비록 일본제의 탐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방법이 달랐다. 일본에서는 좁은 쪽을 위로, 넓은 쪽을 아래로 사용했지만, 제주 해녀들은 그것을 역으로 사용했다. 탐포 위에 상반신을 올려 놓고 쉬기에는 넓은 쪽이 훨씬 편했던 것이다. 그것은 제주도 테왁에 익숙한 해녀들이 도구 사용방법을 달리 취한 것이다.

탐포를 뒤집어 수영하고, 수확물을 넣어서 무겁게 되면, 망시리를 통속에 넣고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서 좋다고 한다.

과도가 거친 와타우라에서는 나무통을 사용했지만, 가나야와 다케오까에서는 발포 스티로폼 덩어리를 천이나 그물로 싸서 테왁 대신 사용하고 호타에서는 고무제의 부표에 포를 씌우고, 발포 스티로폼 덩어리를 중앙의 고리 부분을 내어서 사용한다. 포를 씌우는 것은 성계의 침에 찢려 구멍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 빗창 대신 이소가네로

일본 와다우라에 출가물질 간 해녀들은 전복을 따는데, 빗창 대신 이소가네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도구는 빗창과는 달랐다. 이소가네는 길이가 제주 빗창 보다 길고, 한쪽은 전복을 따는 빗창 기능이 되기도 하고, 다른

37) 金榮·梁澄子, 앞의 책, 42 쪽, 142 쪽의 예.

쪽은 갈구리처럼 구부러져 성계나 소리를 취하는 ‘호맹이’ 역할을 하는 편리한 도구이다.

제주도 해녀들은 전복 채취할 때 바위 위로 올라온 것을 주로 따면서 짧은 빗창을 사용하는데 익숙했으나, 바위 구멍 속에 숨어있는 전복을 따기에는 이소가네가 적당했다. 도구 사용에 서투른 해녀들은 처음에는 전복을 상처내기도 하곤 해서 이소가네의 유용함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차츰 이소가네가 익숙하게 되고 편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 질구덕³⁸⁾ 대신 유모차로

제주의 해녀들은 보통 물질 도구와 채취한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데, 질구덕을 사용했다. 그러나 와다우라에 간 해녀들은 유모차에 도시락과 탐포, 이소가네 등을 담아서, 집에서 아마고야(해녀 탈의장)로 가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나간다.

라. 작업형태와 고무옷

일본에 출가 물질간 해녀들의 작업형태는 잠수기선에 의한 것파, 재래형 단독 잠수방법으로 대별되고, 작업복은 방수용 스폰지로 되어있어 매우 편리하나 곳에 따라선 아직도 앞가슴을 들어낸 소중기를 입고하는 원시 작업형태가 1970년대까지 남아있었다.³⁹⁾

곧 고무옷을 입고, 잠수기선에서 공기를 호흡 받는 콤프레샤 작업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질 할 때 입는 물옷인 ‘소중기’가 고무옷으로 바뀐 시기가 일본에서는 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본 출가 물질간 해녀들에 의해 사용했던 고무옷이 1970년경에 한국에 직접 가지고 들어와 사용되고 곧 바로 직수입 된 점을 알 수 있다.⁴⁰⁾

38)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39) 제주신문, 1970년, 7월 4일자

40) 무로토미사키에 출가 물질 해녀를 인솔했던 정○일씨 백부는 한국에 들어와 여수 울산 등지에서 고무옷 장사를 시작했다. 1970년에는 3만원, 1975년 당시는 한 벌 가격이 5만~6만원 정도, 1980년에는 8만원, 1990년에는 12만원, 2004년 현재는 20만원 정도나 된다고 했다.

3. 현지민과의 관계

가. 미쯔끼, 다이버와의 싸움

일본 보소반도 가나야에서는 잠수들과 미쯔끼와의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미쯔끼 방법은 파도가 잔잔한 바위지대에서 성행하던 어법으로 배 위에서 물안경으로 밑을 내다보면서 가재나 소라, 전복 등을 찢러 채취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작업 방법이나 수확물을 비교해보면 해녀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미쯔끼들은 ‘해녀는 천적이다’라고 까지 단언했다. 그래서 해마다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분쟁이 일어났는데, 조선인 연맹(1945-1949)에서 활동했던 김기철(金基哲, 당시 65)씨는 일본 보소 반도에서 일어난 일본인과 해녀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일례로 가나야와 시즈오카의 동포 동지가 싸우는 것을 중재했는데, 그 결과 해녀는 어업협동조합 정조합원은 될 수 없고, 다만 일대에 한해서 비조합원이 된다는 결정을 얻었다.

가나야에서도 자주 다이버들과 해녀들의 분쟁이 생겼다. 어협은 해녀들의 영역을 늘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어(禁漁)구역까지 침범하고, 한편 다이버들이 해녀들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협조합 측은 다이버들을 옹호하고, 바다의 물건이 없어진 것은 수질오염과 다이버들에 의한 피해보다는 오히려 해녀들 남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다.

나. 일본인에게 물질 전수

일본 보소반도 지꾸라에 살고 있는 사카모토상은 자신의 집 창고에 살았던 조선인 해녀에게서 물질하는 것을 배웠다. 부모가 한국 사람과 함께 물질하면 쇼꾸해녀(職海女)가 된다고 종용했다.

그리고 제사와 같은 집안의 모임에 초대되어 김치를 먹고, 한국 음식을 먹고 조리했으며, 바다에서 물질할 때 수영하는 방법도, 도구의 사용법도 해녀들을 따랐다. 이소오케 사용도 통이 넓은 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해

녀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했다. 손으로 밀어 나가면서 발만으로 수영하는 것, 일본의 긴 이소가네를 허리에 차지 않고 손에 잡은 채로 수영하거나 잠수하는 것 또한 한국 해녀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리고 해녀 소중기가 뚱뚱하더라도 배가 나오지 않아서 일본 아마들도 즐겨 입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조선' 혹은 '조센'이라고 불렀다.

IV. 결어

출가(出稼)는 해녀 자신들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물질작업 하는 것을 말한다. 곧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가 작업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제주 해녀의 출가 물질에 따른 현지 적응과정과 민속적 대응 양상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고찰했다. 지역은 日本 보소반도(房總半島)를 비롯하여 日本 쓰시마(對馬島), 日本 시곡꾸(四國) 무로또미사끼(室戶岬), 그리고 강원도 주문진과 경상도 구룡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지역마다 그 적응과정 상에 나타난 현지 대응과 변용 과정의 여러 특성들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출가의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 잠수기 어선의 남획을 들 수 있으며, 일본출가는 제주 해녀가 일본해녀에 비해 능력 면에서 우월하고, 또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환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물질 작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우선 현지 적응 과정을 살펴보면,

1922년경부터 군대환의 출항으로 제주의 많은 출가해녀들이 일본 보소반도로 출가했다. 인솔자가 그 지방 어협의 의뢰를 받거나, 입찰에 따라 포(浦)를 사서 모집되어 갔는데, 이들에게서 생존을 위한 인고의 삶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일제 하에서 화약재료가 되는 감태를 자르는 징용의 성

격을 띤 물질에서 식민지 해녀들이 당했던 전쟁을 위한 노동력 수탈의 성격을 읽을 수 있고, 그 이래 1970년대까지 일어났던 계약 위반 등 출가물질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해방 전에는 주로 부산을 경유해서 쓰시마로 건너가 3월에서 9월까지 전통적인 어법으로 물질 했으나, 1954년경 이후부터는 주로 콤프레샤 물질을 했다. 해방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했고, 쓰시마 물질의 특징은 테왁을 이용한 나잡어법에서 콤프레샤 물질로 전환, 작업 방법 변화가 이 지역 물질의 특징이다.

무로또미사끼에서는 어업 조합이 해녀들과 직접 계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솔자와 년 단위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채취한 해산물의 양에 따라 금액을 정해서 지불했는데, 미리 선금금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배를 가지고 있어서 해녀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역 민과 해녀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구룡포의 출가 물질 해녀들에게서 권리획득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살필 수 있다. 출가해녀들은 지방해녀들에게 천대를 받았으며, 출가해녀들의 권리는 망각되고, 당시 어협조합은 제주 해녀 탈퇴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출가 해녀와 대표들은 해녀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경상북도 감포, 양포, 구룡포를 중심으로 경북재정지구를 정해, 재정인원 1070명으로 확정했다. 결국 지방해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어하게 되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서는 나잡 어업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민들에게 해녀 기술을 습득,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생업현장에서 작업했다.

또 어릴 적부터 자맥질로 물헤엄을 배우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던 경험은 출가물질을 가셔도, 새로운 환경을 학습하고 쉽게 적응케했다. 출가물질간 해녀들은 외부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업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다. 강원도에 출가간 해녀들은 입어권을 바로 인정받았으며, 구룡포에서는 입어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했다. 그러나

일본 출가 물질은 달랐다. 일본인들은 해녀들에게 '소라채취어업중'이나, '준조합원' 대우를 해주었으나, 이것은 노동력 수탈을 위한 회유책의 일환이었다.

해녀들은 일본에 출가 가서 물질도구인 '태왁' 대신 '이소오케'(磯桶)를 자신들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는 등 물질도구의 변용이 있었다. 현지 일본인들과의 관계에서 미즈끼와 다이버들 싸움이 자주 일어났고, 반면 일본인에게 물질 작업 전수를 시키면서 서로 공존해가며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간 것이다.

- 핵심어: 출가, 지방해녀, 입어권, 징용물질, 경북재정지구

<참고문헌>

제주도, 『해양수산현황』, 2001.

『제주신문』·『제민일보』·『한라일보』 해녀 관련 기사, 1950~현재.

강대원, 『해녀연구』(개정판), 한진문화사, 1973.

고광민, 「裸潛漁撈集團의 組織과 技術(1) : 平日島에서 濟州道出稼海女들의 삶」,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대학교, 1992.

고광민, 『漁具』, 제주대학교 박물관, 2002.

김광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문화재관리국, 1976.

김두희·김영돈, 「해녀어장분구조사연구」, 『제주대논문집』 14집, 1982.

김영돈,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김영돈·김범국·서경림,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6.

김 정, 「제주풍토록」,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0.

- 시바료타로, 『탐라기행』, 학고재, 1998.
- 안미정, 「제주잠수의 과거와 현재」,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청, 2001.
- 이 건, 「제주풍토기」, 『탐라문헌집』,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 李元鎮, 『耽羅志』(조선조 효종 4년), 1653.
- 유철인, 「濟州 海女の 몸과 技術에 대한 文化的 접근」,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요지집, 민속학회, 1999.
- 유철인, 「제주해녀의 삶-역사 인류학적 과제」,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청, 2001.
-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韓國水産誌』, 1910.
- 조혜정,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1998.
- 좌혜경, 「제주해녀노래의 생산과 수용」, 『깨어나는 제주 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청, 2001.
- 좌혜경, 『한국, 제주, 오끼나와 민요 민속론』, 푸른사상, 2000.
- 현용준, 「약마회고」, 『연암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 제주대학교, 1980.
- David W. Plath, Fit Surroundings, 해양문명사에서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발표요지, 제주도, 2002.
- 泉靖一, 『濟州道』, 東京: 東京大出版會, 1996.
-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 金榮·梁澄子, 『海を渡つた 朝鮮人 海女』, 東京: 新宿書房, 1998.
- 榎田一二, 「濟州島海女」, 『榎田一二地理學論文集』, 東京: 弘詢社, 1976.
- 榎田一二, 「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二』, 1934年 3月.
- 岩田準一, 『志摩 の海女』, 아텍뮤지엄, 1942.
- 出辺悟, 『近世日本蠻人傳統の 研究』, 東京: 慶友社, 1996.
- 田辺悟, 『日本蠻人傳統の 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90.
- 鳥羽市 菅島町編, 『ふるさど(菅島)』, 1979.
- 野村史降, “海女- 出稼の 人口”, 海外 人間 鳥羽市博物館 特別號, 1989年 秋號
- まらいに, (牧野文子譯), 『海女の 島- 舩倉島』, 東京: 未來社, 1964.
-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島の海女』, 東京: 明石書店, 2001.

龜山慶 ; 『漁民文化の 民俗研究』, 東京: 弘文堂, 1986.

田中のよ 著, 加藤雅毅編, 『海女だちの 四季』, 東京: 新宿書房, 2001.

渡部文也・高津富男, 『伊子灘漁民誌』, 愛媛縣 文化振興財團, 2001.

<Abstract>

A Study on Women Sea Diver's Adaptation to New Work Environments

Choa Hye Kyung

The term '*chul-ga*' refers to women sea divers going to other bodies of water to dive away from their homes. These projects were mostly carried out to earn more money by going to different places.

The adaptation process and aspects of the ethnic responses followed by their arrival were considered through on-site investigations and various records in this study. The main areas that were studied included: Boso peninsula, Tsushima Island, Shikoku, Murotomisaki in Japan and Jumunjin of Gangwon-do province as well as Guryongpo of Gyeongsang-do province, Korea. Conclusions were drawn by going through the changes, the adjustment processes as well as various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each districts.

The foremost motivation of their going away was firstly because the Japanese fishing boats caught too many fish which resulted in seriously deplating the fish stock (especially the abalones) and the Jeju women sea divers were far superior in their diving ability than the Japanese women sea divers. Furthermore, it was possible to reap economic benefits from the sea produce which led to the favorable changing of the attitude towards diving work.

If you were to look into the adaptation process first, with the departure of the *Kimikayomaru* (Japanese ship) starting around 1922, many Jeju women sea divers went to Boso peninsula of Japan. The

guide who led them were either requested by the fisheries association of that district or they were recruited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Japanese bidders. Here, we are able to have a glimpse into the women sea diver's stoic will to survive all odds. This can be seen especially through their exploitation to do forced labor by diving in and cutting the laver (*Porphyra tenera*) which became the basic ingredient for gunpowder necessary for wa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fore, there is no denying the negative aspects of going away to dive elsewhere, such as the violation of contract, from this period until the 1970's.

Before liberation, most of the diving was carried out in a traditional fashion from March to September by going over to Tsushima Island via Busan, but after 1954, most of the diving was done using the compressor. Many people settled for good after liberation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sushima Island was that its diving method changed from the method to dive in about 10m and plucking the sea produce with a pair of tongs and using the *taewak* (a kind of a floating buoy used by Jeju women sea divers) to using compressors to dive.

In the case of Murotomisaki, the fisheries associations found it difficult to establish direct contracts with the women sea divers. Therefore, they signed contracts with their team leaders on an yearly basis. They set up the contract period and paid them according to the sea produce they caught at the end but sometimes they would give them an advanced payment. Also, the residents around that area had boats and needed women sea divers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and women sea divers were a closely knit one.

We are able to investigate into the history of fighting for their

rights from the women sea divers who went to Guryongpo. The women sea divers from other areas were looked down upon by the indigenous women sea divers and the rights of the transient women sea divers were totally obliterated. The fisheries association during those times finally reached a point where they asked for the secession of the Jeju women sea divers. Therefore, the representatives and all the transient women sea divers worked hard to protect their rights. They designated the cities of Gampo, Yangpo and Guryongpo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s their main centers and finalized the number of their members to 1070 people. As a result, they were able to obtain equal fishing rights as the local women sea divers.

In Jumunjin, Gangreung City, Gangwon-do province, not only did they obtain diving fishing rights but they learned diving skills from the local women sea divers and had the same rights to work in the sea.

Furthermore, the experience they had by learning how to swim and going under water,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boundaries of land and water since they were young, stood them in good stead in their ability to learn and adapt to their new environments. These transient women sea divers embraced the culture of an outside world and tried their best to obtain their livelihood rights. The women sea divers who went to Gangwon-do province were awarded their rights almost immediately. In the case of Guryongpo, they had to fight for their fishing rights. However, the situation in Japan was vastly different. The Japanese treated the Jeju women sea divers as quasi-members of the fisheries association and gave them licenses to pluck shells but this was only a part of the conciliatory measure to exploit them at the end.

The women sea divers had to change their equipment when they

went to Japan : they used the *isooke* changing them a little to suit their needs instead of the *taewak*. They clashed often with the local Japanese divers especially with the Mizuki. while they co-existed with them and adapted to their society.

- Key Words: women sea divers, adaptation, environments, compressor, fishing rights